

『동의보감(東醫寶鑑)』의 방제 인용과정에서 나타난 오기 연구

허봉희

서울대학교 천연물과학연구소

Several errors in transcription of prescriptions of 「Donguibogam」

On the purpose of globalization of TradiMed, we began the translation of prescriptions in 「Donguibogam」 into English. At the onset of works we have to put standard code to each prescription. In the course of this work I found the several differences among them in comparison with original texts quoted from . The author elucidated the original texts at the end of each prescription in abbreviation. As well known, 「Donguibogam」 is combined medicinal book written by Huh Jun in 1613 and the book is evaluated as most brilliant book not only in our country but also one of the valuable books in abroad as for reference in this field. The book comprises about 6700 kinds of prescriptions quoted from many medicinal books ancient or contemporary. There are a lot of possibilities of errors in transcription with hands. Considering the author's fame or value of the book as for reference in this field, it might be overlooked these errors. But I think some of these errors may cause some kind of mistakes in explanation of prescriptions. Then to be pointed out of them in domestic is better than in abroad. Being in the time of finishing of TradiMed I dare to write this paper nevertheless of my short knowledge on chinese medicine.

Key Words : prescription, principal drugs, differ from original text, errors of Chinese characters in transcription, efficacy, being left out of principal drug, substitute of drugs to another.

I. 서 론

전통동양약물의 Database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동의보감」에 수록된 6700여 개의 방제와 그 주치

병증, 효능, 구성약재, 제제법, 용법, 저작연대 등을 분석하여 입력하고 약재에 대한 제반 정보, 주치병증의 설명, 약재의 수처법 등을 정리하여 《전통동양약물 데이터베이스(TradiMed DB)》를 서울시스템을 통하여 출판한 바 있다.

다시 그 개정증보판을 내고 본 사업의 세계화를 지향하는 뜻에서 영문 번역을 위해 1996년 10월에 본 연구소에서 한 중 일 3국의 전문가들이 만나 우선 방제의 표준화를 시도하고 표준code는 군약의 Latin명을 따고 주치병증과 연계시키기로 합의한 바 있다.

접수 : 2000년 1월 16일 채택 : 2000년 2월 5일
교신저자 : 허봉희, 서울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천연물과학연구소
(02-740-8908, trnifol@yes.snu.ac.kr)

이 code화 추진 과정에서 방제의 군약을 찾기 위해 주치병증을 분석하고 구성약제의 효능과 연계시키는 중 몇몇 방제에서 군약 또는 처방명을 이루는 약이 빠졌거나 효능 설명에 방제에 들어있는 약제의 효능과 맞지 않는 등 또는 약제명의 글자 하나가 잘못되어 전혀 다른 약제로 바뀌었거나 또는 인용된 방제에 착오가 있는 등을 알게 되었다.

예컨대 천오(川烏)와 천궁(川芎), 갈근(葛根)과 천근(茜根), 오배자(五倍子)와 오미자(五味子) 또는 치자인(梔子仁)과 옥리인(郁李仁) 등이고 인용된 방제의 착오는 천궁석고산(川芎石膏散)에 통성산(通聖散)에 가감 약제를 쓰라고 되었는데 통성산의 구성약제와 치료하는 병증이 전혀 맞지 않아 참고문헌과 대조했더니 동의보감에 수재된 통성산이 아니고 방풍통성산(防風通聖散)의 가감이었다. 이는 바로 앞 항목에서 방성통성산이 나왔기 때문에 간단하게 통성산이라 기록한 것으로 생각되기도 하나 일단 항목을 붙여 정리해 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된다.

「동의보감」은 가히 의성이라 일컬어지는 허준 선생의 최대 역작이고 우리나라뿐 아니라 널리 외국에서도 인용 참고되고 있는 국보적인 전통의학서이다. 각 방제에는 인용된 원전이 간략하게 명시되어 있다.

그 많은 의서들에서 발췌 필사하는 과정에 몇몇 오자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기도 하나 우리가 이를 지적하고 수정하는 것도 배우는 자세라고 생각되고 외국학계에서 지적되는 것보다 국내에서 먼저 밝혀짐이 낫겠다고 생각되어 정리한 것을 감히 발표하는 바이다.

II. 연구 방법과 내용

동의보감의 연구 저본으로 영인본인 여강출판사에서 나온 한국의학대계중 제11-14권을 저본으로 하였다. 또 널리 보급되고 있는 남산당에서 출판한 원본 동의보감 1991년도 판본을 보조로 썼다.

동의보감은 양생에서 인체구조, 각종 질병, 그에 따른 치료법, 방제, 약제, 침구 등 방대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그 가운데 방제명과 그 내용 약제에 초점을 맞추어 인용 당시 오기(誤記) 되었다고 생각되는 방제

를 찾아 원본과 대조하여 밝혔다. 용량은 시대에 따라 다소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어 그냥 두었다. 그러나 방제를 구성하는 약제가 다르던 명명법에 의거해서 방제명이 다르게 되고 또 방제명에 나온 약제가 빠진 경우도 원전과 대조해서 그 약제가 빠졌음을 알게 되었다. 또 원전에 수록된 약제가 글자 하나 때문에 전혀 다른 약제로 바뀐 경우도 있었고 인용 원전이 다르게 수록된 경우도 있었다. 참고문헌을 얻을 수 있는 범위에서만 고증하였고 사전류를 참고로 하기도 하였다. 시간 관계상 좀더 캐지 못하였음은 아쉽게 생각된다.

그러나 본서는 많은 의서를 인용하여 그 분량이 방대하여 인용 과정에서 완벽하게 필사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필자는 우선 방제의 내용에 국한하여 동의보감의 원전과 인용된 원본과 대조하여 그 오자 및 오기를 밝혀두는 것이 동의보감의 보다 완벽한 의서로서의 가치를 회복하는데 일익이 되리라 생각되어 우선 작업한 바를 밝히고 계속 조사하고 고찰하고자 한다.

1. 인용된 원전(原典)의 오자(誤字)

(1) 갈가구(葛可久) 「십약신서(十藥新書)」 잡병(雜病) 4篇

남산당(이하 남산이라 함) p453,

여강출판사 영인본(이하 영인이라 함) 13권 237-240

갈가구(葛可久)

명(名): 갈건손(葛乾孫) 명(明), 「십약신서(十藥神書)」

중국의학대사전(中國醫學大事典, 이하 대사전(大事典)이라 함) 대사전(大事典) p1356

보진탕(保眞湯)

중화명의방제대전(中華名醫方劑大全 이하 「방제대전(方劑大全)」이라 함)

「동의보감」에는 「신서(新書)」로 원전이 명시되어 있으나 이는 갈가구의 「십약신서(十藥神書)」를 의미하는 「신서(神書)」가 잘못 쓰여진 것이다.

2. 인용된 원전이 다른 경우

(1) 화울탕(火鬱湯) 잡병(雜病) 3篇, 남산 p422, 영인본 13권 p112

「동의보감」에는 「동원십서(東垣十書)」를 의미하는 「동원(東垣)」으로 되어 있으나 「동원십서(東垣十書)」에 수록된 방제와는 다르다.

화울탕
강황 승마 건갈 백작약 인삼 시호 감초 각 1전 방풍 5푼

	방제대전	「대사전(大事典)」
	(方劑大全) p461	p1013
보화탕(保和湯)	방제대전	「대사전(大事典)」
	(方劑大全) p460	p1012
태평환(太平丸)	이하상동 p118	이하상동 p207
소화환(消化丸)	p550	p1048
윤폐고(潤肺膏)	p563	p1044
백봉고(白鳳膏)	p199	p375
보수단(補髓丹)	p357	p621
십회산(十灰散)	p12	p11
화예석산(花蕊石散)	p317	p647
독삼탕(獨參湯)	p466	p1031
작 1첩 입 총백 3치 수전복		

「동원십서방(東垣十書)」 이하 「동원(東垣)」이라 함)

화울탕 「동원(東垣)」
승마 갈근 백작약 시호근 각 1냥 감초(자) 방풍 각 5전 입 총백 3치 수전복
「방제대전(方劑大全)」 p154, 「대사전(大事典)」 p155

(2) 인삼사폐탕(人蔘瀉肺湯) 내경(內景) 3篇 남산 p145, 영인11권 p568

인삼사폐탕
황금 치자 기각 박하 연교 행인 상백피 대황 길경 감초 각 7푼 수전복

「단심(丹心)」 그러나 「단계심법(丹溪心法)」(이하 「단심(丹心)」이라 함)에는 없고 「수진방(袖珍方)」으로 「중화명의방제대전」에 원전이 기록되어 있다. 또 다른 항목에서 언급하겠지만 방제명을 이루는 인삼이 들어 있다.

인삼사폐탕 「수진방(袖珍方)」
황금 치자 기각 인삼 박하 연교 감초 행인 상백피 대황 감초 가(加) 길경 각 등분
「방제대전(方劑大全)」 p33
또 「중국의학대전」에는 원전이 「태평해민화제국방」으로 되어 있다.

(3) 침향강기산(沈香降氣散) 외형(外形) 3篇 남산 p282, 영인 12권, p326

침향강기산
강황 진피 감초 각 1전 삼릉 봉출 병외(并熨) 익지 후박 각 7푼
백출 자소엽 향부자 신국 맥아 오약 각 5푼 인삼 가자 대복피 각 2푼 반 수전복

「단심(丹心)」 침향승강산(沈香升降散) 「어약원방(御藥院方)」 침향 빈랑 각 2전 5푼 인삼 대복피 가자(외) 각 5전
백출 오약 향부자 자소엽 후박 신국 맥얼 각 1냥
경삼릉 봉아출 익지인 진피 강황 감초 홍화 각 4냥
연말(研末) 每服2전 食前 沸湯 調下
「대사전(大事典)」 p 599

침향, 빈랑, 홍화 외에는 「어약원방」과 거의 같고 「단계심법」의 침향강기산은 「어약원방」의 침향강기산과 같다. 역시 방제를 구성하고 있는 침향이 빠져 있다.

「단계심법」의 침향강기탕(沈香降氣湯)
침향 목향 정향 곽향 인삼 감초 백출 각 1냥

육두구 계화(桂花) 빈랑 진피 사인 천강 기실
백단 각 2냥

백복령 청피 백두구 매복 3전 수전복

「어약원방(御藥院方)」의 침향강기산(沈香降氣湯)
침향 목향 정향 곽향 인삼 감초 백출 각
30g 백단 60g

육두구 측사인 계화 진굴피 청피 백두구 백복
령 각 15g 천강 기실 각 60g

「방제대전(方劑大全)」 p350

(4) 조등고(釣藤膏) 잡병(雜病) 11 편, 남산 p644, 영인 14권 p167

목향 강황 각 2전 유향 몰약 각 1전 반 목
별자육 5개

爲末 蜜調 成膏 釣藤煎湯 혹은 薄荷湯 化下 「의
학입문(醫學入門)」 이하 「입문(入門)」 이라함

「의학입문(醫學入門)」에는 이 조등고가 없고, 위
의 조등고는 「전을소아약증고(錢乙小兒藥證考)」(이
하 「전을방(錢乙方)」으로 표시) 의 조등고와 같았다.

조등고(釣藤膏) 「전을방(錢乙方)」
유향 몰약 목향 강황 각 4전 목별자인 21개
爲末 煉蜜和 成劑

「대사전(大事典)」 p997

(5) 유향진통산(乳香趁痛散)

골쇄보 창이자 자연동 백지 계피 방풍 당귀
적작약 혈갈 몰약 백부자 각 3전

호경골 귀판 각 2전 우슬 천마 빈랑 오가피
강활 각 1전 가(加) 전갈 1전

爲末 2전 溫酒 調下

「동원(東垣)」

유향진통산 「인제직지방(仁濟直指方)」(이하
「직지방(直指方)」이라 함)

유향 3냥 호경골 패귀 각 2냥
기린갈 적작약 당귀 몰약 방풍 자연동 백부자
날계(辣桂) 백지 창이자 골쇄보 각 3냥

우슬 천마 빈랑 오가피 강활 각 1냥 연위말(研
爲末) 每服 1전 가(加) 전갈 우묘(尤妙)

「대사전(大事典)」 p829

위와 같이 인용 원전이 다르게 기록되어 있다.

3. 방제명(方劑名)음독의 오자(誤 字)

익국환(翼麴丸), 익국보화환(翼麴保和丸), 가미익국
환(加味翼麴丸)

잡병(雜病) 6篇, 남산 p487, 영인 13,
p370-p371

이들은 각각 '익(麥변에 弋)'으로 음이 표시되어 있
고 또 '세면(細麵)'이라고 설명이 붙어 있기도 하다. 그
러나 '보리 맥(麥)'변에 '과(戈)'자는 없고 '익(翼)'자가
가까워 남산당 발행본에는 익국환, 익국보화환, 가미익
국환 등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문헌을 조사해 본 결과
월국환(越麴丸), 월국보화환(越麴保和丸), 가미월국환
(加味越麴丸)으로 자기 방제명이 기록되어 있고 널리
쓰이는 방제이다.

「방제대전(方劑大全)」 p661, 「단심(丹心)」 권3,
「대사전(大事典)」 p414, 1347.

아마도 '월(越)'자의 획이 지워진 문헌에서 유래되었
거나 "越"자가 다음에 온 "麴"자의 "麥"변의 영향을 받아
옳기는 사람이 잘못 새겨서 생긴 誤字인 것 같다.

4. 방제명의 글자가 바뀐 경우

(1) 경효산(輕效散) 외형(外形) 1篇, 남산 p222, 영인 12권 p90

시호 2전 대황 당귀 적작약 서각 각 1전
감초 5푼 수전 식후복

「입문(入門)」

경효산(輕效散)

시호 5전 대황 당귀 작약 분초(粉草) 연교 각
2전 반 서각 5푼 수전복

「의학입문(醫學入門) 이하 입문(入門)이라함」 입문 p556
(入門) IV권 p586,

「대사전(大事典)」 p886
이상 두 원본을 대조해 볼 때 “輕”자는 “經”으로 바뀌어 “經效散”으로 함이 옳다고 본다.

(2) 삼신산(三神散) 잡병(雜病) 11篇, 영인 14, p200

삼신산(三神散)
건강 7전 반 세신 계심 각 5전 爲末 薑汁和 付顛上

「삼인방(三因方)」
「삼인극일병증방론(三因極一病證方論)」 이하 「삼인방(三因方)」이라 함

삼신산(三辛散) 잡병(雜病) 11편 남산 p652

세신 계심 각 5전 건강 7전 5분 研末 薑汁和 敷貼顛上

「대사전(大事典)」 p45-46

이는 영인본에는 삼신산(三神散)으로 나와 있는데 남산당 발행본에는 삼신산(三辛散)으로 되어 있고 인용원문인 「삼인방(三因方)」이 「중의학대사전」에 나와 있어 삼신산(三辛散)이 맞다고 본다.

(3) 소식청울탕(消息淸鬱湯) 잡병(雜病) 4篇, 영인 13, p176

반하 진피 백복령 신국 초 산사 육 향부자 천궁 맥아 초 기각 치자 초

황련 강즙초 창출 곽향 감초 각 7분 挫 作 1첩 입 생강 3 수전복

「회춘(回春)」

소식청울탕(消食淸鬱湯) 남산 p438

먹은 것을 소화시키는 것이므로 소식(消食)이 옳고 또 인용원문과 대조했더니 역시 소식청울탕(消食淸鬱湯)이 옳았다.

「회춘(回春)」 p159, 「방제대전(方劑大全)」

(4) 계비각반탕(桂婢各半湯) 잡병(雜病) 2篇, 남산 p380, 영인 12, p712

석고 2전 계지 작약 마황 각 1전 감초 3분 생강 3편 대조 2매 수전복

「입문(入門)」

계지이월비일탕(桂枝二越婢一湯)
계지 작약 마황 각 1전 석고 2전 감초 3분 생강 3편 대조 2매 수전복

「입문(入門)」 3권 p329, 「방제대전(方劑大全)」

p513

인용원본 「의학입문(醫學入門)」 외 다른 참고 문헌에도 계지이월비일탕(桂枝二越婢一湯)으로 되어 있고 더욱이 방제명이 비슷한 계지마황각반탕의 구성약재에서 석고가 빠져있어 마땅히 후자로 고침이 타당하다고 본다

계지마황각반탕(桂枝麻黃各半湯)
「상한(傷寒)」

계지 5g 작약 생강 감초(자) 마황(거절) 각3g 대조 4매

행인(탕점, 거피, 점, 양인자) 24매 수전복
「방제대전(方劑大全)」 p513

(5) 청륙환(淸六丸) 내경(內景) 4篇, 남산 p183, 영인 11, p781

청륙환(淸六丸)
익원산(益元散) 3냥 홍국 반 냥 진미반화환(陳米飯和丸) 梧子大 空心 白湯下 50-70환

「단심(丹心)」

청륙환(淸六丸)
육일산(六一散) 1료(料) 홍국 반 냥 위말 병환(餅丸) 오자대 매 70환 백당하

「단심(丹心)」 권2, 「대사전(大事典)」 p779
인용 원본인 단계심법과 대조했더니 靑六丸으로 되어 있고 내용으로 봐서는 靑六丸이 나올 것

같으나 원전의 내용을 밝혀준다..

(6) 팔보회춘탕(八寶廻春湯) 잡병(雜病) 2篇, 남산 p368, 영인 12, p661

은 팔보회춘탕(八寶回春湯)

「대사전(大事典)」 p23, 「방제대전(方劑大全)」

p27

(7) 회양구급탕(廻陽救急湯) 잡병(雜病) 2篇, 남산 p389, 영인 12, p747

은 회양구급탕(回陽救急湯)이다.

「대사전(大事典)」 p509, 「방제대전(方劑大全)」

p273

(8) 회양반본탕(廻陽返本湯) 잡병(雜病) 2篇, 남산 p390, 영인 12

p752

은 회양반본탕(回陽返本湯)

「대사전(大事典)」 p273

(9) 회양탕(廻陽湯) 잡병(雜病) 3篇, 남산 p405, 영인 13

p43

은 회양탕(回陽湯)

「대사전(大事典)」 p271, 「방제대전(方劑大全)」

p509

회(廻)와 회(回)는 음이 같고 뜻이 통하기도 하나 인용된 원문에 회(回)로 되었으니 “回”로 고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5. 군약(君藥) 또는 방제명을 구성하는 약제가 빠진 경우

(1) 저근백피환(樗根白皮丸) 내경(內景) 1篇, 남산 p85, 영인 11권 p331

구자 1냥 백작약 초 5전 황백 지모 병염수초(并鹽水炒) 모려(煨) 각 3전

백출 기실 복령 시호 승마 각 2전 위말 신국호환(神麴糊丸)

「고금(古今)」

저근백피환(樗根白皮丸)

백출 기실 복령 시호 승마 각2전 황백 염수초 지모 염수초 모려 각3전

구자 1냥 작약 초 5전 爲末 神麴糊丸 매부 50환 空心 鹽湯下, 久不止면 저근백피(樗根白皮) 7전을 가함

「고금의감(古今醫鑑)」 이하 「고금(古今)」이라 함)

저근백피환(樗根白皮丸)

저근백피 21g 백출 기실 복령 시호 승마 각 6g 황백 지모(병염수초) 모려(하) 각 9g

구자 30g 작약(초) 15g 위말 신국호환

「방제대전(方劑大全)」 p747

「동의보감」에만 저근백피가 빠져 있다.

(2) 인삼사폐탕(人蔘瀉肺湯) 내경(內景) 2篇, 남산 p145, 영인 11, p568

인삼사폐탕

황금 치자 기각 박하 연교 행인 상백피 대황 길경 감초 각 7푼 수전복

「단심(丹心)」

인삼사폐탕

황금 치자 기각 인삼 박하 연교 감초 행인 상백피 대황 길경 각 등분 수전복

「방제대전(方劑大全)」 p33, 「대사전(大事典)」

p31

방제 중에 인삼(人蔘)이 빠져 있다

(3) 유향진통산(乳香趁痛散) 외형(外

形) 3篇, 남산 p279, 영인 12, p315

유향진통산(乳香趁痛散)
골쇄보 창이자 자연동 백지 계피 방풍 당귀
적작약 혈갈 몰약 백부자 각 3전
호경골 귀판 각 2전 우슬 천마 빈랑 오가피
강활 각 1전 가(加) 전갈 1전
「동원십서(東垣十書)」
이하 「동원(東垣)」이라 함) 「동원(東垣)」

유향진통산(乳香趁痛散) 「지지방(直指方)」
유향 3냥 호경골 폐귀 각 2냥 기린갈 적작약
당귀 몰약 방풍 자연동 백부자 날계
백지 창이자 골쇄보 각 3냥 우슬 천마 빈랑
오가피 강활 각 1냥
「대사전(大事典)」 p829
방제 중에 유향(乳香)이 빠져 있다.

(4) 침향강기산(沈香降氣散) 외형(外形) 3篇 남산 p282, 영인 12, p326

침향강기산
강황 진피 감초 각 1전 삼릉 봉출 익지 후
박 각 7푼
백출 자소엽 향부자 신국 맥아 오약 각 5푼
인삼 가자 대복피 각 2푼 반 수전복
「단심(丹心)」

「단계심법(丹溪心法)」에 있는 침향강기산과는 구
성약제가 다르고 오히려 침향승강산(沈香升降散)의 구
성약제와 같은데 다만 방제명을 구성하는 침향(沈香)
이 빠져 있다.
「단심(丹心)」 권4, 「대사전(大事典)」 p599

(5) 주침전(朱沈煎) 잡병(雜病) 11篇, 남산 p650, 영인 14, p192

주침전
주사 2전 곽향 3전 활석 5전 정향 14립

위말 신급수(新汲水) 1잔 입 마유(麻油) 적성화
(滴成花)
초약(抄藥) 5푼 거수(去水) 별용(別用) 온수하
「강목(綱目)」
「의학강목(醫學綱目)」 이하 「강목(綱目)」이라
함)
주침전(朱沈煎)
주사 2전반 침향 2전 곽향 3전 활석 반량
정향 14립
爲末 每服 半錢 用 新汲水 1盞 滴油成花子, 抄藥在
上 須臾墜, 濾去水, 却用別水 空心送下
「강목(綱目)」

주침단(朱沈丹)
주사 2전 5푼 침향 2전 곽향 3전 활석 5전
정향 14립
용법은 위 주침전(朱沈煎)과 같다.
「대사전(大事典)」 p516

「중의학대사전」의 주침단(朱沈丹)과도 대조했다.
방제 중에 침향(沈香)이 빠져 있다.

(6) 조등산(釣藤散) 잡병(雜病) 11篇, 남산 p644, 영인 14, p167

방제 중에 조구등(釣鉤藤)이 빠져 있다.

조등산
인삼 서각 각 5푼 전갈 천마 각 2푼 감초
1푼 수전복
「입문(入門)」

인용 원전인 「의학입문(醫學入門)」 5권 p321에
구등산(鉤藤散)이 있으나 역시 조구등이 빠져 있다.

6. 군약(君藥)이 잘못 기재된 경우

용뇌계소환(龍腦鷄蘇丸) 내경(內景) 3 篇 남산
p110, 영인 11, p427
용뇌계소환

박하 1근 맥문동 4냥 포황 아교 각 2냥 감초 1냥 반 인삼 황기 각 1냥
위말 별이(別以) 시호 목통 각 2냥 용탕침2숙(用湯浸二宿) 취즙
용밀2근(用蜜二斤) 연12비(煉十二沸) 입 생건지 황말 6냥 攪均
시호 목통즙 만화오(慢火熬) 성고(成膏) 연후 전약말 수화위환(搜和爲丸)

「국방(局方)」

용뇌계소환

「태평혜민화제국방(太平惠民和劑局方)」

(이하 「국방(局方)」으로 함)

시호 60g(동 목통 用沸湯 100ml 침 2숙 교즙 후 입고)
목통 아교 포황 인삼 각 60g 맥문동 120g 황기 30g 계소 500g 감초 45g
생건지황말 180g(후입고)
「방제대전(方劑大全)」 p179-180,

용뇌계소환

용뇌계소 1근 맥문동 황기 포황 아교 인삼 목통 은시호 각 2냥 감초 1냥 5전
생지황 6냥

「대사전(大事典)」 p345

용뇌박하의 기원은 *Stachys baicalensis* Fisch.(일명 계소)이고
박하의 기원은 *Mentha arvensis* var. *piperascens* Malinv. 이다.

「중약대사전(中藥大辭典)」

이하 「중약(中藥)」이라 함. 「중약(中藥)」 2823, 4357

박하와 용뇌박하는 그기원이 위와 같이 각각 다르다.

방제 중의 박하(薄荷)는 용뇌박하(龍腦薄荷)가 되어야 한다.

7. 인용 방제가 잘못된 경우

천궁석고산(川芎石膏散) 잡병(雜病) 2篇, 남산 p367, 영인 12, p660

천궁석고산

여통성산(與通聖散) 동 능청신 상지 선통기혈(同能淸神 爽志 宣通氣血)

통성산 무 마황 망초 유 한수석 인삼 축사 제법 복법 역동(劑法服法亦同)으로 되어 있다.

통성산(通聖散) 잡병(雜病) 11篇, 남산 p667, 영인14, p260-261

백국화 녹두피 곡정초 각 등분 위말 1전

이 방제는 두후예막(痘後翳膜)에 쓰는 약으로 구성 약제로 보나 치료병증으로 보나 중풍 치료와는 전혀 맞지 않는다. 아마 바로 앞에 방풍통성산이 수록되어 있어 통성산을 쓴 듯하다. 다른 참고문헌에서 천궁석고산을 찾아 대조했더니 다음과 같았다.

방풍통성산(防風通聖散) 잡병(雜病) 2篇, 남산 p367, 영인12, p659

방풍통성산(防風通聖散)

활석 1전 7분 감초 1전 2분 석고 황금 길경 각 7분

방풍 천궁 당귀 적작약 대황 마황 박하 연교 망초 각 4분 반

형개 백출 처자 각 3분 입 강 5분 수전복 「입문(入門)」

천궁석고산

「입문(入門)」

천궁 작약 당귀 산치 황금 대황 국화 형개 인삼 백출 각 1.5g 활석 12g

한수석 길경 각 6g 감초 9g 석고 방풍 연교 박하 3g 사인 0.75g

수전 은복

「방제대전(方劑大典)」 p73

보감에 수록된 바 통성산의 마황 망초가 없고 한수석 인삼 축사가 있다면 나머지 약제들은 방풍통성산(防風通聖散)의 구성약제와 같다. 따라서 통성산을 방풍통성산으로 고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8. 방제 중 약재가 바뀐 경우

(1) 인삼양영탕(人蔘養榮湯) 잡병(雜病) 4篇, 남산 p447, 영인 13, p213

인삼양영탕
백작약 2전 당귀 인삼 백출 황기 육계 진피
감초 각 1전
숙지황 오미자 방풍 각 7푼 반 원지 5푼 입
강3 조2 수전복

「회춘(回春)」

인삼양영탕
인삼 당귀 진피 황기 계심 백출 감초 각 1전
백작 2전
숙지황 복령 오미자 각 7푼 반 원지 5푼
「만병회춘(萬病回春)」(이하 「회춘(回春)」이라
함) 「회춘(回春)」 p183

인삼양영탕
황기 당귀 계심 감초 꿀피 백출 인삼 각
30g 백작약 90g
숙지황 오미자 복령 각 22g 원지 15g 입 강
3, 조2 수전복
「방제대전(方劑大全)」 p39, 「방제학(方劑學)」
이하 「방제(方劑)」라 함 「방제(方劑)」 p264

위에 제시한 바와 같이 인용원전이나 참고문헌에 있
는 바와 같이 복령이 방풍으로 바뀌어 있다.
따라서 방풍을 복령으로 고치는 것이 타당하다.

(2) 고경환(固經丸) 내경(內景) 3篇 남산 p159, 영인 11, p624

고경환
황금 백출 귀관 각 1냥 춘근백피 7전 황백 3
전 향부자 2전 반

위말 주호화환 백당하 70환

「입문(入門)」

고경환

황금 백작 귀관 각 1냥 춘근피 7전 황백 3
전 향부 2전 반

위말 주호환 오자대 매 50환 주하

「입문(入門)」 5권 p128

고경환

「단심(丹心)」

황금 백작 귀관 각 30g 황백 9g 춘근백피
23g 향부자 7.5g

「방제대전(方劑大全)」 p390, 「방제(方劑)」 p356

인용원전과 다른 참고문헌에 수록된 바 와 같이 백
출(白朮)과 백작(白芍)이 바뀌어 기재되었다.

백작으로 고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3) 오적골환(烏賊骨丸) 내경(內景) 3 篇 남산 p159, 영인 11, p621

오적골환

오적어골 여여(蘭茹) 각 등분 위말 작란(雀卵)
화환 매 10환 포어탕(鮑魚湯) 하

오적환 즉 사오죽골 일여여환(四烏鯽骨—蕪茹丸)

오적골 4푼 여여(즉 茜草) 1푼 연말 작란화환
매복 5환 포어즙(鮑魚汁) 송복

「간명중의사전(簡名中醫辭典)」 이하 「간명(簡
名)」이라 함

「간명(簡名)」 p243, 「대사전(大事典)」 p278,
280

혈고경폐(血枯經閉)를 치료하는 방제로 지혈작용이
있는 천초가 구성약제로 타당하고 여여(蘭茹)는 여로
(茹蘆)가 잘못 기재된 것으로 안다.

여여(蘭茹) = 토과낭독(土瓜狼毒)

Euphorbia prorifera Buch.-Han 「원색화한약
도감(原色和漢藥圖鑑)」 이하 「원색(原色)」이라함
원색(原色) 上 p136-137

여로(茹蘆) = 천초(茜草)

Rubia cordifolia L.

「중약(中藥)」 3143

(4) 두충환(杜冲丸) 외형(外形) 2篇

남산 p279, 영인 12, p314

두충환

두충 귀관 황백 지모 구기자 오배자 당귀 백작약 황기 파고지 각 1냥

爲末 煉蜜 猪脊髓 和丸 梧子大 空心 鹽湯下 80환

「입문(入門)」

두충환

두충 귀관 황백 지모 구기자 오미자 당귀 작약 황기 파고지 각 1냥

위말 연밀 등 저척수 화환 오자대 매 80환 공심 염탕하

「입문(入門)」 4권 p715, 「방제대전(方劑大全)」 p314

인용원전과 대조했더니 오배자(五倍子)는 오미자(五味子)가 잘못 기재된 것이다.

(5) 지유산(地榆散) 내경(內景) 4篇

남산 p187, 영인 11, p740

지유산

지유 서각 황련 갈근 황금 각 1전 치자 5푼 입 해백 5경 수전복

「활인(活人)」

지유산

「태평성혜방(太平聖惠方)」

지유 황련 서각 천초 황금 각 30g 치자인 15g 입 해백 5촌 수전복

「방제대전(方劑大全)」 p245

이 방제는 농혈리(膿血痢)를 치료하기 위한 것으로 지혈 작용이 있는 천근(茜根)이 갈근(葛根)으로 잘못 기재되었고 실제로 참고문헌에도 천초가 수록되어 있다.

(6) 중만분소탕(中滿分消湯) 잡병(雜病) 6篇 남산 p503, 영인 13, p433

중만분소탕

익지인 반하 목향 적복령 승마 각 7푼

천궁 인삼 청피 당귀 시호 생강 건강 필징가 황련 황기 오수유 초두구 후박 각 5푼

수전복

「단심(丹心)」

중만분소탕

「난실비장(蘭室秘藏)」

천오 택사 황련 인삼 청피 당귀 생강 황시호 건강 필징가 각 0.6g

익지인 반하 복령 목향 승마 각 0.9g 황기 오수유 후박 초두구 황백 각 1.5g

위조말(爲粗末) 용수(用水) 600ml 전지(煎至) 300ml 공심복(空心服)

「방제대전(方劑大全)」 p125, 「대사전(大事典)」 p225

「단계심법」에 중만분소탕이 수록되어 있기는 하나 치료 목적이 열창(熱脹) 또는 기창(氣脹)으로 되어 있고 여기서 기록된 바대로 한창(寒脹)은 아니다. 한창을 치료하려면 산한약인 천오가 합당하고 원전에 수록된 바와 같이(川芎)은 천오(川烏)가 잘못 기재된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여기서 천오는 군약에 해당되는 것으로 여겨질만큼 그 역할이 중요하다.

(7) 신선탈명단(神仙奪命丹) 잡병(雜病) 5篇 남산 p463, 영인 13, p276

신선탈명단

백초상 5전 옹황 봉사 각 2전 유향 1전 반 녹두 흑두 각 49립

위말 오매 30개 수침 거핵 취옥 화약말 도균 탄 자대 주사 2전 위의(爲衣) 매 1환 금(噉)

「입문(入門)」

신선탈명단
오매 13개(수침 거핵) 요사 6g 응황 6g 유향 3g 백초상 15g 녹두 흑두 각 49립
오매육 도란 취육 전약 병2두 위말 도화군 위환 탄자대 주사의(朱砂衣)

「방제대전(方劑大全)」 p496

방제 중의 붕사(礬砂)는 요사(礲砂)가 잘못 기재된 것으로 생각된다. 붕사가 내복용으로 쓰이는 예는 극히 드물고 요사의 효능과 맞다. 그러나 인용된 원전 「의학입문」에도 붕사가 쓰여 있어 다만 의견을 말할 따름이다.

「입문(入門)」 4권 p853

(8) 사간산(瀉肝散) 외형(外形) 1篇 남산 p217, 영인 12, p69

사간산

대황 감초 각 5전 옥리인 형개수 각 2전 반분 2첩 공심 수전복 「득효(得效)」

「세의득효방(世醫得效方)」은 「동의보감」에 수록된 대로 「득효(得效)」로 적는다.

사간산

「직지방(直指方)」

치자인 형개 대황 감초 각 등분 매복6g 수전복

「방제대전(方劑大全)」 p405, 「대사전(大事典)」 p949

청간열 작용이 있는 치자인(梔子仁)이 옥리인(郁李仁)으로 잘못 기재된 것으로 생각되어 참고문헌과 대조했더니 역시 바뀌어 있었다.

(9) 신성산(神聖散) 외형(外形) 1篇 남산 p206, 영인 12, p25

신성산 치뇌풍사기(治腦風邪氣)

마황 세신 갈근(반생반초) 광향엽 각등분 위말 매취 2전 형개 박하탕하 「하간(河間)」

「하간상한심요(河間傷寒心要)」인지 그의 유하간(劉河間)의 다른 저서인지 몰라 다만 「동의보감」에 수록된 바 「하간(河間)」으로 적는다.

신성산

마황 세신 건갈(乾蝸 반생반초) 광향 각15g 세라위산(細羅爲散) 매취 3g 박하주 후

형개탕하

「태평성혜방(太平聖惠方)」 「방제대전(方劑大全)」 p491

신성산

마황 세신 건갈(乾葛 반생반초) 광향엽 각등분 위말 매2전 형개탕 후 박하주 조하

「유하간방(劉河間方)」 「대사전(大事典)」 p919

위에서 「중의학대사전」에 나온 내용과 「동의보감」에 나온 내용이 같으나 갈근을 반생반초한 것이 납득이 안 가고 또 주치병증이 뇌풍이기 때문에 갈근 보다는 「명의방제대전」에 수록된 바와 같이 전갈을 말린 건갈(乾蝸)이 맞을 것이다.

9. 증상 및 효능 설명의 오류

(1) 억청환(抑靑丸) 잡병(雜病) 3篇 남산 p419, 영인 13, p100

억청환

벌심경지화(伐心經之火) 겸치주열(兼治酒熱)

황련(주초 후 강즙초) 위말 죽환 백탕하 20-30환 「입문(入門)」

인용 원전인 의학입문에는 이 방제가 없고 아래 책들에서는 사간화(瀉肝火)로 되어 있다.

실제로 청색은 간을 상징하므로 간화(肝火)를 사한다고 생각된다.

「단심(丹心)」 권4, 「방제대전(方劑大全)」 p330

(2) 양담원(涼膽元) 외형(外形) 1篇 남산 p217, 영인 12, p69

효능설명에 담수풍한이작(膽受風寒而作)은 「중의학

대사전」에 설명된 바 담수풍열이작(膽受風熱而作)이 맞다고 생각된다. 적용 병증이 흑화예(黑花翳) 즉 흑수응에내장(黑水凝翳內障)으로 이를 담열의 소치(有膽熱所致)로 설명하고 있다.

「대사전(大事典)」 p1063

따라서 '풍한'이 '풍열'로 고쳐져야 옳다고 생각된다.

(3) 승마별갑탕(升麻鱉甲湯) 외형(外形) 3篇 남산 p285, 영인 12, p338

적용 증상에서 음독발(陰毒發)은 양독발(陽毒發)로 설명되어 있다. 증상설명에 모기등에 물린 듯하고 비단문 같지는 않다고 되어 있다. (如蚊蝥虱咬 形狀而非錦紋也). 그러나 「중의대사전」에는 '治陽毒, 面赤如錦紋.....'으로 되어 있다. 또 '其邪隱于表中之裏者爲陰毒'이라 되어 있어 음독이 아니고 양독이 맞다고 생각된다.

「방제대전(方劑大全)」 p138, 「대사전(大事典)」 p255

(4) 소안신환(小安腎丸) 잡병(雜病) 4篇 남산 p450, 영인 13, p225

치 신기허비 야다선탁(夜多漩濁)으로 되어있으나 선(漩)은 그 뜻이 소용돌이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여기서는 뜻이 통하지 않고 흑시 뇨(溺)가 잘못 쓰여진 게 아닌가 생각되기도 하여 차라리 원전에 있는 대로 치 신기허편 야다유뇨(夜多遺尿)으로 한 것이 맞다고 생각된다.

「대사전(大事典)」 p129

(5) 벽력산(霹靂散) 잡병(雜病) 2篇 남산 p390 영인 13, p43

음성격양증(陰盛隔陽證)으로 되어있으나 음성격양증(陰盛格陽證)이 맞다고 생각된다.

격양증은 隔陽이 아니고 格陽이 맞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에도 格陽證으로 나와있다.

「방제대전(方劑大全)」 p773

10. 단순오자(單純誤字)

(1) 문합산(蚊蛤散), 문합탕(蚊蛤湯) 내경(內景) 2篇 남산 p112, 325, 영인 11, 436-437

이는 문합산(蚊蛤散)과 문합탕(蚊蛤湯)이 되어야 한다.

태을자금단(太乙紫金丹)의 구성약재인 문합(蚊蛤)도 문합(蚊蛤), 일명 오배자이다.

「중약(中藥)」 1744, 「방제대전(方劑大全)」 p152, 153

(2) 서경탕(舒經湯) 외형(外形) 4篇 남산 p298, 영인 12, p370,

증미오비탕(增味五痺湯) 잡병(雜病) 2篇, 남산 p370, 영인 12, p671

중의 해동피(海東皮)는 해동피(海桐皮)로 고쳐져야 한다.

(3) 마황좌경탕(麻黃左經湯) 외형(外形) 4篇 남산 p302, 영인 12, p404

이성구고환(二聖救苦丸) 잡병(雜病) 7篇 남산 p528, 영인 13, p533

가감향령산(加減香苓散) 외형(外形) 4篇 남산 p314, 영인 12, p454

인삼양위탕(人蔘養胃湯) 잡병(雜病) 2篇 남산 p385, 영인 12, p732

적용증의 증한(增寒)은 증한(憎寒)이 잘못 기재된 것으로 생각된다.

「대사전(大事典)」 p1193, p31

(4) 거풍단(祛風丹) 잡병(雜病) 2篇 남산 p368, 영인 12, p664

거풍단(祛風丹)이다.

「대사전(大事典)」 p914

(5) 박하밀(薄荷蜜) 외형(外形) 2篇
남산 p244 영인 12, p 174

증상설명중의 백태(白胎)는 백태(白苔)이고 또 어성부진(語聲不眞)은 어성부진(語聲不振)인줄 안다.

(6) 장부(藏府), 원장(元藏), 장독(藏毒), 장한(藏寒)등의 장(藏)은 장(臟)을 간략히 쓴 것으로 안다.

(7) 번번이 나오는 봉사(礮砂)는 봉사(鵬砂)로 적혔는데 이는 틀린 것은 아니다.

III. 결 론

1. 인용 원전의 오자는 모두 10자이었다.
 2. 인용 원전이 다른 경우가 5가지였다.
 3. 방제명의 음독이 잘못 된 게 3가지였다.
 4. 방제명의 글자가 바뀐 경우가 9가지였다.
 5. 군약 또는 방제명을 구성한 약제가 빠진 것이 5가지였다.
 6. 군약이 잘못 기재된 것이 1가지였다.
 7. 인용된 방제가 다른 경우가 1가지였다.
 8. 방제 중 약제가 다른 약재로 바뀐 것이 9가지였다.
 9. 증상 또는 효능 설명이 잘못된 것이 5가지였다.
 10. 자주 나타난 단순 오자가 6자였다.
- 앞으로 이 방면의 연구를 계속하면 더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안다.

1. 허준(許浚) 원저, 동의보감국역위원회(東醫寶鑑國譯委員會) 편, 「동의보감(東醫寶鑑) 신증판(新增版)」 서울, 남산당, 1991
2. 허준(許浚) 저, 「동의보감(東醫寶鑑)」, 『한국의학대계(韓國醫學大系)』11-14, 서울, 여강출판사(驪江出版社), 1992
3. 이천(李楨) 편저(編著), 채인식(蔡仁植) 역, 「국역편주 의학입문(國譯編註醫學入門)」, 서울, 남산당, 1988
4. 평화이런(彭懷仁) 主編, 「中華名醫方劑大全」, 北京, 金盾出版社, 1991
5. 세관(謝觀) 主編, 「중국의학대사전(中國醫學大事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3
6. 쉬지권(許濟群)·왕진즈(王錦之) 主編, 「방제학(方劑學)」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5
7. 주전형(朱震亨) 撰, 「丹溪醫集」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3
8. 풍탕산(龔廷賢) 撰, 「萬病回春」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4
9. 중국중의연구원(中國中醫研究院), 廣州中醫學院 編, 「簡名中醫辭典」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4
10. 중국중의연구도서관(中國中醫研究圖書館) 編, 全國中醫圖書聯合目錄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1991
11. 상하이과학기술출판사(上海科學技術出版社) 編, 「중약대사전(中藥大辭典)」, 東京, 小學館, 1985
12. 로우잉(樓英) 편찬(編撰) 「의학강목(醫學綱目)」,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84
13. 풍신(龔信) 纂輯, 「고금의감(古今醫鑒)」,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85
14. 난빠카네오(難波恒雄) 著, 「원색화한약도감(原色和漢藥圖鑑)」 大阪, 保育社, 1984

참고문헌